

세븐일레븐 가니? 디지털화폐 써봐



Cover Story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험



세븐일레븐 '디지털 화폐 테스트'.

세븐일레븐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여러분, 이제 디지털 화폐 세상이 오고 있어요.”

한국을 포함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열심히 개발해왔어요. CBDC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한국은행이, 미국에선 연방준비제도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이달부터 특별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한강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이 실험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달 동안 우리 국민 10만명이 참여해 디지털 화폐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본다고 합니다. 자기 계좌에 있는 예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 후 전자지갑에 보관하면서 편의점이나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사용해보는 거예요.

저도 디지털 화폐를 써보기 위해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해봤어요.

먼저 KB스타뱅킹 앱에서 전자지갑을 만들고 그다음엔 ‘예금 토큰’(전자지갑에 들어 있는 디지털 화폐)을 충전했어요. 충전 시간은 약 10초로, 평소 사용하던 카카오페이 머니 충전만큼 빨랐어요.

예금 토큰을 충전했다면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실제 결제해보기 위해 한강 프로젝트가맹점인 세븐일레븐 매장을 찾아갔어요.

결제는 은행 앱에 있는 QR코드를 보여주는 방식인데요. “예금 토큰으로 결제할게요”라고 말하자 직원이 QR코드를 스캔했고 결제는 2초 만에 완료됐어요. 세븐일레븐에서는 예금 토큰으로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까지 주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할인된 가격으로 음식을 즐길 수 있었죠.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돈을 다 못 써도 걱정할 필요는 없었어요. 남은 디지털 화폐를 수수료 없이 원래 돈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저도 남은 3000원을 제통장으로 다시 넣을 수 있었죠.

소비자 입장에서선 “이거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바일 간편결제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간편결제는 내 은행 계좌에 보관된 ‘실물 원화’를 기반으로 돈을 대신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하지만 CBDC는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원화’를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실물 화폐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거래인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지폐 대신 디지털 공간에만 존재하는 돈으로 떡볶이를 사먹고 아트박스에서 문구류 쇼핑을 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으니까요.

김혜순 기자

세계 경제 쥐락펴락하는 ‘페이팔 마피아’



세계는 지금
World News



페이팔을 창업한 일론 머스크(오른쪽)와 피터 툴. 두 사람과 함께한 동업자들은 현재 경제계 거물이 됐다.

Associated Press

비밀 하나를 공개할게요. 사실 이 세상은 ‘마피아’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실없는 음모론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아주 조금 진실을 담고 있어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주요 관료까지. 오늘은 페이팔 마피아의 정체는 무엇인지, 어떻게 세계 경제의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페이팔, 전설의 시작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 1998년 12월. 실리콘밸리에서 컨피니티라는 회사가 세워졌어요. 당시 생소한 개념이었던 온라인 송금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목표였죠. 이 서비스가 바로 ‘페이팔’이었어요.

지금이야 온라인 결제가 보편화돼 있지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신선한 서비스였어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이유였죠. 서비스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페이팔은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이 서비스의 잠재력을 눈치챈 미국 대표 온라인 경매회사 이베이는 아예 회사를 사들였어요.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15억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2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페이팔을 만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았어요. 창업자 명단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 전기차동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AI)과 방산(군사 관련 산업)을 결합해 주목받고 있는 회사 팰런티어의 창업자 피터 툴, 유튜브 공동 창업자인 채드 헐리·스티브 첸, 세계 최고의 채용 소셜미디어 링크트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 트럼프 행정부에서 AI와 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삭스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회사 나간 후 더 잘나가네요

이베이에 인수된 후에도 이들은 잠시 페이팔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신생 회사 페이팔에서 자유롭게 일하던 이들은 경직된 대기업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죠. 창업자들이 잇달아 회사에서 나간 배경이었죠.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었지만, 이는 미국 경제에 축복이나 다름없었어요. 페이팔 창업자들이 든든한 투자자금을 들고 새로운 회사를 창업해 나갔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서로가 얼마나 재능 있고 열정적인지를 알았기에 각자 창업 과정에서 서로를 도왔어요. 머스크가 항공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를 만들자 피터 툴이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는 식이었어요.

테슬라, 스페이스X, 유튜브, 팰런티어, 링크트인, 트위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기업 서비스 모두 페이팔 마피아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페이팔이라는 회사 하나가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인큐베이터였던 셈이에요.

우리나라도 마피아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2000년대부터 창업 붐이 일면서 비슷한 사례가 조금씩 생겨나는 분위기예요. 네이버·카카오 창업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자신만의 사업을 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당근마켓, 두나무, 블라인드 등 유명 스타트업들이 두 회사 출신이 만든 거예요. 아직은 페이팔 마피아처럼 엄청난 성과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요.

우리나라에도 한 회사에서 함께 시작해 같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같은 고향·같은 학교라고 무조건 돕고 보는 ‘연고주의자’들보다는 ‘마피아’들이 훨씬 세상에 이로우니까요. 매일경제 디그

경제공부 필수품
온·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대한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 다50736

발행간격 : 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매일경제아카데미 이메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매경·금융저축정보센터 기획

후원

신한은행

KYOB

우정사업본부

MERITZ

한국투자

증권



카카오페이·삼성페이랑 닮은 듯 다르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나요?

비트코인은 전 세계 이용자들이 분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이런 가상화폐가 많이 발행되고 사용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인데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가상화폐가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결제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졌어요. 중앙은행들도 이 기술을 연구하면서 디지털 화폐의 강점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가상화폐처럼 디지털로 작동하지만 중앙은행이 안정적으로 보증해줄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더 편리하고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만들었어요. CBDC는 우리나라 원화나 미국 달러와 같은 국가 공식 화폐(법정화폐)지만 실제 지폐나 동전을 찍어내지 않는다는 점에선 디지털 화폐예요.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는 점은 기존 가상화폐와 유사하지만 가치가 정해져 있어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부가 보증하니까 디지털 화폐라도 실제 종이돈과 가치는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을 이용해서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 투자하는 상품으로 활용할 수는 없어요.

CBDC 도입으로 뭐가 달라질까?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들의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미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가 널리 쓰이고 있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도 보편화됐으니까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해요. 돈을 주고받는 데 따른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각 나라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의 CBDC를 개발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CBDC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과 보안 유지에 유리해요. 결제 처리를 위한 여러 기관이나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도 안전하게 운영되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때나 국민이 정부에 세금을 낼 때도 여러 금융기관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세금을 낼 때 그저 CBDC를 넣어둔 우리 전자 지갑에서 정부 지갑으로 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러면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쓰기도 훨씬 편하고, 탈세나 불법 거래를 단속하기도 쉬워져요. 돈이 오고 가는 대부분의 거래에서 효율성이 대폭 개선되는 거죠. 물론 실물 화폐를 찍어내고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게티이미지뱅크

한은 디지털화폐 실험

국가가 만든 가상화폐
정해진 값 바뀌지 않아
비트코인 등보다 안전

현금·카드 등 필요없이
모바일 QR로 바로 결제

CBDC 본격 도입되면
정부·기관 효율성 ‘쑥’
비용 줄이고 보안 강화
개인정보 침해는 속제

디지털 화폐, 좋기만 할까?

이렇게 편리해 보이는 CBDC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개인정보 침해 문제예요.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건 뒤집어보면 정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실제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e-CNY)’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비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대비해야겠죠. 또 하나는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예요. “QR코드 사용도 아직 어려운데, 디지털 화폐라니...”라고 한숨 쉬는 노년층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CBDC가 도입되더라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CBDC 도입은 단순히 돈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변화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 CBDC 도입과 화폐 시스템의 변화가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남궁석 인턴기자

금값이 올랐는데, 왜 코코아 생산이 줄죠?

Q.

저는 초콜릿을 정말 좋아해요. 오후에 피곤할 때면 하나씩 꼭 입에 넣곤 하죠. 겨울엔 핫초코 한 잔씩 하고요. 그런데 뉴스에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올라 초콜릿 가격이 비싸질 거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제 금 가격이 코코아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요. 금과 코코아,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서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핫초코와 초콜릿.

게티이미지뱅크

A. 여러분, 가나 초콜릿 알죠? 아프리카 가나가 세계적인 코코아 생산지라서 초콜릿 이름에 가나를 붙인 거예요. 실제로 가나는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코아 생산량이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2023년 초 이후 최근까지 뉴욕에서 거래되는 국제 코코아 가격은 3배 넘게 올랐어요. 기후변화, 병충해 문제 등으로 재배가 잘 안 된 탓이라고 해요. 수확량이 줄었지만, 초콜릿 수요는 여전히 많으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 코코아를 재배하는 농부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다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가나 정부에서 코코아를 사들여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국제 코코아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나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가격에 따라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구매하고,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고 해요. 억울하겠죠. 정부의 규제로 이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코코아 농장 땅을 파보니 거기에서 금이 나오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엄청 많이 오른 건 아시죠? 땅을 파서 금과 수준의 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금광이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소규모 금광이라 소량의 금이 돌 군데군데에 섞여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 곡괭이로 땅을 판 다음에 물을 팔팔 흘려보내서 강가에 넓은 채반 같은 걸 받쳐두고 흔들면서 무거운 광물이나 금만 남기는 방식으로 금을 채취해야 하는 거라고 해요.

이때 돌에서 금이 잘 분리되도록 독한 화학물질을 쓰게 돼 물도 많이 오염되기에 법적으로 금지 했어요. 그렇지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고, 코코아 농사로는 농민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으니 점점 불법으로라도 금을 채굴할 유인이 커진 겁니다.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금 채굴을 잘할까 싶은데요. 그들이 직접 하기보다

는 전문적인 채굴 업자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생산량이 20%나 감소했다고 해요.

2006년부터 중국 기업들이 가나의 소규모 금 광산에 눈독을 들이곤 했는데, 최근엔 더욱 많이 그러고 있어요. 가나 코코아 농장 주인에게서 농장을 사들이기도 하고, 농장을 빌린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한 달에 320달러 정도 받고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코코아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크다고 해요.

코코아 농경지가 점차 금 채굴장으로 바뀌어 가고, 그곳은 채굴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해요. 그게 인근 거주 지역으로 흘러가고요. 코코아 생산이 줄어들어 코코아 가격, 초콜릿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게다가 이 지역은 오염이 심해져 옥수수, 카사바 등 다른 농작물 재배도 줄어들 수 있어요. 식수 오염으로 인한 질병 발생도 문제고요. 금 가격 상승이 코코아 생산 감소, 그로 인한 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나의 옥수수, 카사바, 식수에 영향까지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네요.

코코아 농장 농민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코코아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농민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되면 금 채굴자들에게 농장을 빌려주거나 파는 사람들이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요?

가나 정부에서 코코아 산업을 규제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코코아 국제 가격이 올라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니까요. 열심히 일해도 혜택이 오지 않으니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코코아 생산과 가격에 대한 정부 통제를 줄이고, 생산과 판매에서 오는 경제적 유인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코코아 시장이 효율화됐으면 좋겠네요. 서울 양정중학교 교사, 실험경제반 운영



핵심록!

- 1 가나 정부의 코코아 가격 규제
- 2 불법 금 채굴 늘어 코코아 생산 감소
- 3 정부의 가격 통제, 예기치 못한 효과 가져오기도

수능 6월 모의평가, 하루 늦어진 까닭은?



2025년 6월 모의평가가 조기 대선으로 인해 6월 3일에서 하루 뒤인 6월 4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6월 3일은 쉬는 날? 아니, 선거하는 날!

조기 대선 여파로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하루 늦춰졌습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는데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 대통령의 직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선을 준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전 국민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준비하려면 아주 빠듯할 거예요.

따라서 현재의 판결이 난 4월 4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60일 후인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되고 자연스레 임시공

▶ NIE 준비하기

1. 대통령 조기 선거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2. 대통령의 직무 공백이 길어지는 경우 어떠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지 생각해봅시다.

휴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6월 모의평가가 하루 뒤인 6월 4일로 미뤄졌는데요.

학생 여러분들 모두 조기 대선으로 인해 붕 뜬 마음은 딱 잡으시고, 하루 더 열심히 공부해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8,233,700,000,000원 벌어

미국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을 가져다주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산과 조선업 분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미국이 조선업에 있어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우리는 조선에 많은 돈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1위 조선 경쟁력을 지닌 한국 조선 업계가 자연스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호재로 평가받는 방산·조선주가 선전하자 5% 이상 대량

▶ NIE 준비하기

1. 방산과 조선업 분야에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공부해 봅시다.
2. 국민연금과 기업의 주가 상승은 서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토론해봅시다.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작년 12월 30일과 비교해 올해 1분기에만 무려 8조 2337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힘든 한국 사회의 빛이 되어줄 우수한 기업들의 활약, 앞으로가 기대되지 않나요?



3일→4일

조기 대선으로 변경된
6월 모의평가 날짜

8조2337억

2025년 1분기 상승한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0만원

2025년 한국인 1인
월평균 배달 앱 지출

한 달에 3번, 10만원어치 배달 음식

학생 여러분, 배달 앱으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드시나요? 지난 4월 9일 한국인 1인의 월평균 배달 앱 지출이 10만원에 달한다는 와이즈앱·리테일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월평균 주문 횟수는 3.7회, 주문 금액은 9만7059원으로 집계됐으며 스마트폰 보유자 중 53%가 배달 앱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앱 이용 금액은 2조28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인데요. 이는 작년 시작된 ‘무료 배달 서비

▶ NIE 준비하기

1. 작년 쿠팡에서 시작되어 여러 배달 업체가 따라한 ‘무료 배달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2. 기업과 소비자의 측면에서 ‘과열 경쟁’은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논의해봅시다.

스’ 과열 경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배달비가 부담되어 배달 음식을 주문하려다 포기했던 경험이 몇 번 있는데, 배달 업체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잘 파악한 출구전략을 세운 것 같네요. 박현진 연구원

트럼프 할아버지는 왜 중국만 때릴까요?



NIE/영문뉴스 돋보기

U.S. grants Korea 90-day tariff pause, raises tariffs on China

2025.04.11.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excluding China, have been granted a 90-day pause in reciprocal tariffs by the United States.

"I have authorized a 90 day pause, and a substantially lowered ①reciprocal tariff during this period, of 10 percent, also effective immediately," U.S. President Donald Trump wrote in a social media post.

"Based on the lack of respect that China has shown to the World's Markets, I am hereby raising the tariff charged to China by the U.S. to 125 percent, effective immediately."

This marks a 21-percentage-point increase on top of the earlier reciprocal tariff hike from 34 percent to 84 percent (a total of 104 percent) Trump had implemented to counter China's new countermeasures. For countries other than China, however, he decided to defer the imposition of reciprocal tariffs for 90 days and apply only a ②basic tariff of 10 percent.

Analysts noted that a major shift in the global tariff war has taken place just 13 hours after Trump's country-specific tariffs went into effect, as the U.S. and China - two pillars of the global economy - intensified their tariff war. With this decision, Trump's tariffs 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ffectively returned to the basic ③tariff level for a 90-day period.

Earlier, China raised its tariffs on U.S. imports to 84 percent from 34 percent in response to the U.S. tariff increase on Chinese goods to 104 percent. This measure took effect on Thursday.

Chines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Lin Jian, in the meantime, criticized the U.S. on Wednesday for abusing its tariffs against China.

"China firmly rejects and will not accept such measures," he said. "If the United States insists on waging a ④tariff war, China will respond to the end."



게티이미지뱅크

By Choi Seung-jin, Song Kwang-sub, and Yoon Yeon-hae

[© Pulse by Maeil Business News Korea & mk.co.kr, All rights reserved]

한눈에 보는 기사 요약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한국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유예했습니다. 반면 중국에는 즉시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발효된 지 13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90일 동안 기본 관세 수준인 10%가 적용됩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끝까지 관세 전쟁을 고집한다면, 중국도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 배우는 경제용어

이 기사에서는 'tariff(관세)'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됐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알아봅시다.

① **Reciprocal tariff**: 상호 관세,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특정 관세율을 적용할 때, 다른 국가도 이에 맞춰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Basic tariff**: 기본 관세, 한 국가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보편적인 관세를 뜻합니다.

③ **Tariff level**: 관세율 수준을 말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the basic tariff level"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 이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또 'a tariff level of 10%'라고 하면 '10%의 관세율'이라는 뜻이 됩니다.

④ **Tariff war**: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서로 보복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계속해서 올리는 상황을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용한 단어 및 표현

Grant: 허가하다, 부여하다 (예: The government granted access to the documents. → 정부는 그 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가했다.)

Defer: 미루다, 연기하다 (예: The meeting was deferred until next week. → 회의는 다음 주로 연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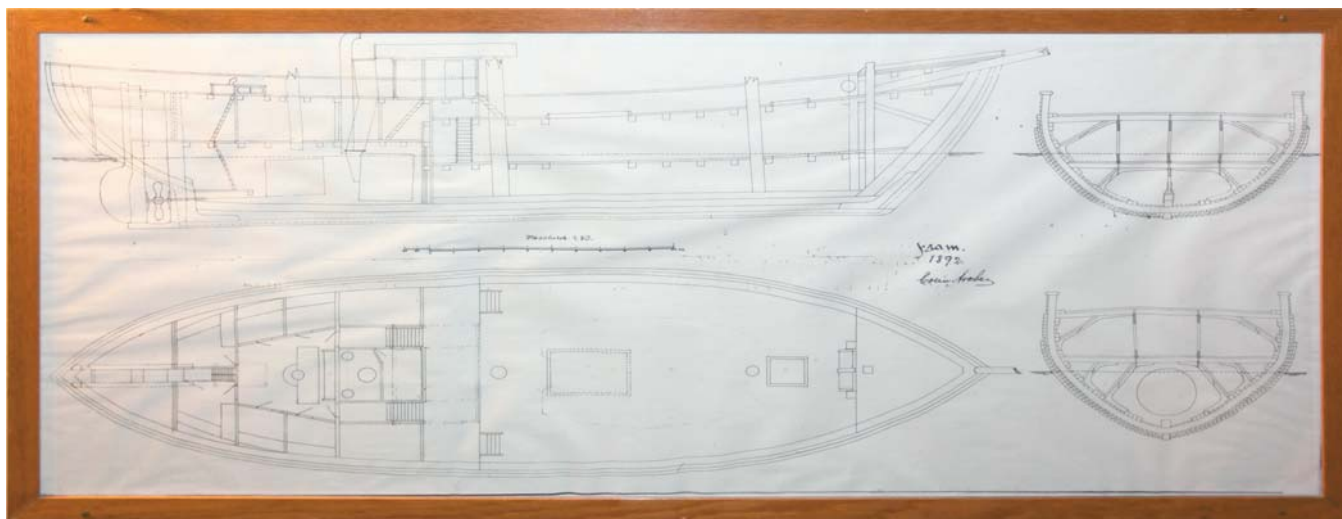
Intensify: 심화되다, 강화하다 (예: The tariff war intensified. → 관세 전쟁은 심화되었다.)

Measure: 조치, 정책 (예: The new measures will take effect tomorrow. → 새 정책은 내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Insist: 주장하다, 고집하다 (예: He insisted he was innocent. →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정주희 연구원

걸어서 갔던 남극, 이젠 우주서 봐요



‘프램’호의 설계도.

위키피디아



교과서 밖 과학이야기

우주에서 극지방을 바라본 첫 인간들

지난 4월 5일, 민간인들을 태우고 우주를 여행하던 스페이스X의 캡슐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극지방을 직접 지나며 바라본 사례였는데요. 이번 우주탐사 임무의 이름이었던 ‘프램2’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북극과 남극 탐험을 개척한 노르웨이 선박 ‘프램(Fram)’에서 따온 것입니다. 100년이 넘는 이름을 다시 불러올 만큼 과거 프램호의 여정은 극적이었습니다. 프램호의 여정을 살펴보면 프램호가 어떻게 북극과 남극을 탐험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프리드쇼프 난센의 북극 탐험

극지를 배로 탐험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 배가 얼음에 눌러 부서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드쇼프 난센이라는 노르웨이의 탐험가는 새로운 형태의 배를 생각해냅니다.

배의 바닥을 둥글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얼음이 밀려오위로 떠오를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극지방의 바다에 맞게 만들어진 이 배는 돛대가 세 개였고, 길이는 약 39m, 너비는 약 11m로 일반 배보다 훨씬 넓고 얇게 만들어졌답니다. 얼음의 압력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이유였죠.

1893년 난센은 12명의 대원, 6년치의 식량, 8년치의 연료와 함께 노르웨이를 떠나 북극해로 향했습니다. 북극의 얼음에 갇힌 프램호에서 난센은 기상, 해류, 자력 관측 등 다양한 과학 연구를 하며 북극점에 도달할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프램호가 북극점까지 가지 못할 것 같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해류가 북극점과는 점점 멀어지는 서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난센은 개썰매와 스키를 들고 배에서 내려 직접 북극점 근처인 북위 86도12분까지 도달했어요. 그 당시로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북쪽까지 간 기록이었습니다.

로알 아문센의 인류 첫 남극점 정복

난센이 북극 탐험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남극 탐험의 영웅시대’가 왔어요. 이 시대에는 여러 나라가 남극 지역을 탐험하면서 과학과 지리 분야에서 중요한 발견들을 했습니다. 무려 10개 나라에서 17번의 큰 탐험이 있었는데, 그중 프램을 타고 남극으로 떠난 로알 아문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아문센은 처음에는 북극점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북극점이 이미 정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목표를 남극점

정복으로 바꿨습니다. 아문센은 탐험을 위해 출발 전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유명해요. 특히 말이 극지방 탐험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포기하고 개썰매만을 이용하였습니다.

또 함께 데려간 개들의 일부는 나중에 먹이로 쓸 생각까지 할 정도였어요. 남극 곳곳에 미리 식량 창고도 설치해 놓았죠. 아문센은 남극에 도착한 후 ‘프램의 집’이라는 뜻의 ‘프람하임(Framheim)’ 기지를 건설하죠.

하지만 아문센의 첫 번째 도전은 실패하고 맙니다. 1911년 9월 출발한 아문센 일행은 기온이 영하 56도까지 떨어지고 개들도 동상에 걸리는 혹한 속에서 크게 고생합니다. 결국 9월 14일 남위 80도 보급소에 장비를 남겨두고 프람하임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1911년 10월 아문센은 다섯 명의 대원, 네 대의 개썰매, 52마리의 개와 함께 남극점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아문센과 대원들은 남극의 험악한 눈보라와 위험한 크레바스(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를 지나 12월 14일 남극점 도달에 성공하고, 1월 25일 무사히 프람하임으로 복귀합니다.

로버트 스콧의 비극

당시 아문센과 남극점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경주’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영국 탐험가 로버트 스콧입니다. 스콧은 아문센과는 달리 말과 모터 썰매를 끌고 남극에 왔죠. 하지만 여러모로 치밀한 계획을 했던 아문센과는 달리, 예상치 못한 남극의 환경 때문에 탐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스콧 일행은 심각한 추위와 식량 부족 속에서 전원이 사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 있었다면, 나는 나의 동료들이 보여준 강인함과 인내, 그리고 용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모든 영국인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다. 이제 이 거친 기록들과 우리의 시신이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야 한다.”

스콧이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인데요. 우리는 이 일기에서 애국심과 용감한 탐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100년이 흐른 오늘날, 프램호의 이름을 딴 임무를 위해 우주에서 극지방을 바라보는 민간인들.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많은 탐험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생명을 무릅쓰고 혹한의 극지를 탐험한 우리 인류를 생각하면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정주희 연구원



해류

일정한 속도와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프람하임

아문센 탐험대가 남극점으로 가기 위해 지은 출발 기지

크레바스

빙하나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

노아의 방주? 여긴 사진의 방주



‘포토아크 (Photo Ark)’ 사진전.

정주희 연구원



동물을 흰색 배경에 배치해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생태계정보 CHECK

다양한 이유로 위험에 처한 동물들

안경올빼미는 고속도로와 농장 개발 때문에 서식지를 잃고 있고, 쇠뿔코를 비롯한 여러 뿔코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방세피아르마딜로는 밀렵, 플로리다퓨마는 서식지 상실과 차량 충돌로 생명을 잃고 있으며, 붉은정강이두크는 불법 포획으로 개체 수가 줄고 있다고 해요.

‘포토아크(Photo Ark)’는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National Geographic)의 사진작가 조엘 사토리(Joel Sartore)가 시작한 사진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동물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해 마치 사진으로 만든 ‘방주(Ark)’처럼 보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 노아의 방주처럼,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생명들을 사진으로 모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녀온 서울 잠실 뮤지엄209에서 열린 ‘포토아크’ 전시는 이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구성된 사진전이었는데요. 단순히 동물원에서처럼 동물을 구경한다는 데에 그치지 않고 생명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박물관 투어를 떠나볼까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보인 건 ‘PHOTO ARK’라고 적힌 검은 벽과 그 주위를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동물 사진들이었어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조명이 은은하게 스튜디오를 비추고 있어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조용한 공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첫 사진 몇 장을 둘러보다가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사진의 배경이 짙은 검은색이라는 것이었어요. 예쁜 색감의 벽들과도 대비돼 동물 사진이 더욱 돋보였죠. 실제로 작가는 동물을 더 강조하기 위해 배경을 검정이나 흰색으로만 설정했다고 하네요.

오디오북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동물은 맨드릴개코원숭이였는데요. 손을 입에 대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원숭이였어요. 이 어린 맨드릴은 적도 가나의 야생 동물 고기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구조되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여전히 그런 환경에 놓인 동물이 많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전시에는 크기가 극단적으로 다른 두 동물도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세인트앤드루해변쥐와 말레이호랑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쥐와 거대한 호랑이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작은 생명’을 무심히 지나쳤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동물들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소중하

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깜빡깜빡 졸린 눈을 하고 있던 올빼미 사진, 모두가 사진 찍기엔 위험하다고 말했던 들소 ‘메리 앤’이 좋아하는 뽕나무 잎을 활용해 안전하게 촬영한 일화 등 다양한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진작가 사토리는 동물이 완벽한 포즈를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러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으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저도 완벽한 자세보다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모습이 훨씬 생동감 있고 친숙하게 느껴져서 마음에 더 와닿았답니다.

가장 마음이 무거워졌던 섹션은 ‘이젠 돌아갈 수 없어’라는 제목의 공간이었어요. 이미 멸종되었거나 극소수만 남은 동물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나비레’라는 이름의 북부흰코뿔소의 사진은 어쩌면 북부흰코뿔소의 마지막 사진일지도 모른다는 설명에 마음이 아팠어요. 사진 속 나비레의 눈빛이 슬퍼 보였던 건, 아마도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는 감정을 제 마음이 고스란히 받아들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시를 다 보고 나오면서, 기프트숍에서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마우스패드 하나와 다양한 동물이 그려진 스티커 한 장을 골랐어요. 기념품이 예쁘기도 했지만, 이 전시에 와서 사진으로 만나봤던 생명들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포토아크’ 전시가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동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동물들의 삶과 처지를 함께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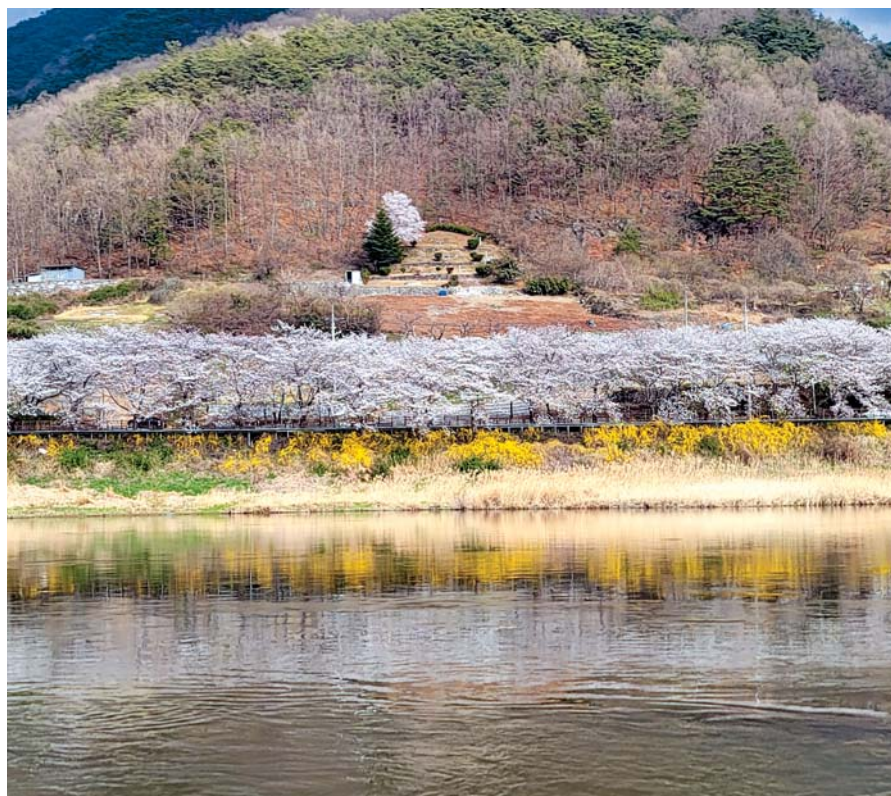
“그들은 우리 인간과 꼭 같다.” 전시장 벽에 적힌 조엘 사토리의 이 말은, 사진 속 동물들의 눈빛과 이야기를 통해 제 마음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 전시를 보며 조엘 사토리가 우리에게 조용하게 질문을 직접 던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 동물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할까?” 사진을 통해 동물과 눈을 마주치며, 저는 이 생각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사라져 가는 생명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지요? 정주희 연구원

2025년의 봄꽃은 지금만 느낄 수 있어

봄이 되면 눈을 어디다 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눈보다 마음이 문제이지요. 매년 봄이면 동네 은행 앞에서 오랫동안 침묵하던 벚꽃망울들이 제각각 분홍빛, 흰빛의 화사한 입술을 내미는 광경을 목격해요. 요즘은 봄꽃 피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매화와 산수유가 아직 꽃망울을 때달고 있는데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나지요. 벚꽃과 목련도 하늘 아래 환해요. 어딜 가도 다 울긋불긋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안타깝지만, 꽃의 독주가 아닌 오케스트라를 듣는 기쁨이 커요. 봄날 아침, 천변이나 공원에 나가 웅장하고 환희로운 색채의 볼륨을 한껏 높여 듣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음악이에요. 하루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일이야말로 도시인들에게 필요한 치유와 휴식일 거예요. 꽃과 나무, 작은 새와 곤충들의 봄노래를 들을 때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죠.



봄꽃 핀 섬진강.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하지요. 봄날을 알록달록 물들이는 꽃들은 어느 아침에 그 눈망울을 닫아버릴지 몰라요. 찬비 흠날리고 바람 한 김 세계 불면 꽃은 다지고 말 거예요. 지난봄 꽃구경을 놓쳤다면 이번 봄에는 반드시 꽃을 만나야 해요. 매화, 산수유,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벚꽃 하면 서울 여의도 윤중로 아닐까요? 투명한 햇빛에 수줍게 고개 든 아침 벚꽃, 따사로운 햇살에 달아오른 낮 벚꽃, 붉은 노을에 흰 반점처럼 피어난 저녁 벚꽃, 달빛과 가로등 불빛으로 화장한 밤 벚꽃...

시간마다 각기 다른 그 아름다움을 익히 알고 있기에 어느 시간대에 꽃구경을 가야 할지 정하는 건 매년 봄 참으로 어려운, 행복한 고민이에요. 붉은 노을 아래 만발한 벚꽃은 고색적인 동양화를 연상시켜요. 벚나무 우듬지 끝마다 활처럼 휘어진 오솔길이 열리고, 끝에 노을이 깃발처럼 때달려 강바람에 휘날리지요.

꽃길을 천천히 거닐며 꽃잎들이 만들어낸 표정을 바라보는 동안 하늘이 등을 뒤집고, 한나절 태양빛 장막에 가려졌던 달과 별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하늘에선 크고 작은 행성들이, 땅에선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특수조명의 알록달록한 빛이 벚꽃잎을 오색으로 물들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봄빛 물결로 일렁이게 만들어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매년 봄이면 꽃을 주렁주렁 매단 가지가 마치 긴 머리칼처럼 아래로 처지는 능수벚꽃이 장관이에요.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면서 산뜻한 봄꽃 나들이를 가보면 어떨까요.

죽음을 삶 안으로 친근하게 불러들여야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래전 오스트리아 빈(Wien) 도심 중앙묘지의 가로수길을 걸으며 느꼈던 청량감과 편안한 휴식의 기쁨을 저는 매년 봄 국립현충원의 능수벚꽃 아래서 만끽하고 있어요. 그 기쁨은 호국영령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잠실 석촌호수, 안양천, 과천 서울대공원, 남산 소월길, 양재천 등 수도권에는 꽃구경하기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봄꽃은 섬진강 강물소리와 함께 피어나요. 물안개가 자욱한 아침, 안개를 머금은 강변도로에 늘어선 벚나무들이 부유했던 분홍빛 터널을 만들어요. 설렘과 감탄으로 이어진 벚꽃 터널을 지날 때, 가진 것이라곤 권태와 따분함뿐인 생도 살아볼 만한 근사한 여정이 된답니다.

서울 여의도, 진해, 하동, 여수가 벚꽃으로 유명하지만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이 수수한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빚어내는 전라남도 구례의 벚꽃이 제일 몽클해요. 압록유원지 인근의 벚꽃 풍경이 특히 경탄을 자아내는데, 예성교 건너 파노라마 펜션을 지나 두가현까지 이어지는 구례 계산리의 이십리 벚꽃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당신과 걷고 싶은 길, 당신이 끝인 길이지요.

강줄기가 채찍이 되어 바람의 등허리를 때리면 봄바람이 말처럼 달려요. 매년 봄 남녘은 벚꽃 천국, 꽃잎의 대설 주의보랍니다. 바람에 꽃잎들이 흩날리며 눈물겨워요. 화개장터와 쌍계사에 가는 차들로 19번 국도는 주차장이 되어 있겠지만, 구례 계산리 구간은 한적하고 조용하기만 해요. 황홀한 꽃비에 흠뻑 젖은 채로 두가현 전통 찻집에서 꽃차를 마시면 봄은 바깥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지요.

매년 피는 봄꽃이지만 2025년의 봄꽃은 지금뿐이죠. 봄날도 가고 봄꽃도 갑니다. 살면서 놓친 것들이 많지만 특히 속상한 건 2003년의 벚꽃과 2006년의 진달래와 2011년의 철쭉을 보지 못한 일이에요. 저를 위해 차려놓은 봄꽃 뷔페에 가앉지 못했죠.

봄날에 꽃구경 한번 가지 않는 것은 자연에 대한 '노쇼(no show)'나 마찬가지예요. 봄꽃은 매년 피지만 올해의 봄꽃은 오직 이 봄에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놓치면 다시 붙잡을 수 없는 아름다운 찰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여행정보 CHECK

서울에서 구례구역까지는 SRT 고속철도나 시외고속버스로 갈 수 있어요. 벚꽃구경과 함께 사성암, 화엄사, 쌍계사, 섬진강 두꺼비다리, 자전거길, 구례오일장 등을 관광하는 즐거움을 누리보아요. 화엄사 음식특화거리에 있는 식당 '구례밀밭'은 자연의 재료로 정직한 맛을 내는 집이에요. 콩국수와 들깨수제비가 일품이지요.

고려 군대의 힘으로 조선을 세운 이성계

“왜변이 일어나면서 성읍(城邑)이 빈터가 되고 살림집들이 불타 없어졌다. 그 결과 수년간 버려져 왜적들의 소굴이 되고 호랑이와 멧돼지가 옛 마을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변방의 방비가 없게 되자 왜적이 더욱 깊이 들어와 원주, 춘천, 철원을 침범하였고 공주의 수령을 살해하였다.”(양촌집)

고려 말 홍건적의 침입으로 고려의 군대가 북쪽 국경 쪽에 몰리면서 서해안, 남해안의 방어가 약화됐다. 이때 바다 건너 왜구의 침입이 크게 늘어나 고려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외침을 막기 위해 고려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국보인 조선태조어진(朝鮮太祖御眞)으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입니다. 매경DB

Q. 고려 말 고려의 군대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A. 원나라 황제의 부마(사위)였던 고려 왕은 원나라 간섭기에 군대를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원나라(몽골) 사위 국가를 넘보는 다른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원나라 쇠퇴 이후 고려는 군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적의 침입을 맞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건적의 침입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중국인들은 홍건적이라는 이름으로 원나라 세력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원의 반격으로 요동 쪽으로 도망쳐온 일부 홍건적은 고려를 침범하기도 했습니다. 1361년 10만여 명의 홍건적이 쳐들어와 고려의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은 안동까지 피란을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공민왕은 전투 이후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로 들어가는 것을 고려했을 정도로 홍건적의 침입은 위협적이었습니다.

1362년 원나라는 홍건적의 침입 상황을 이용하여 눈엣가시 같던 공민왕을 폐위하고 덕흥군을 고려 왕으로 책봉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 전후 공민왕은 군대와 장군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홍건적의 침입을 막아낸 공민왕은 대규모 공신 책봉을 진행했는데 공신 275명 중 263명이 군대의 사령관 무장이었습니다. 이는 무장들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공민왕 이후에도 북쪽의 위협은 계속되었습니다. 1382년(우왕 6년) 원나라의 남은 세력 호발도(胡拔都)가 의주에 침입했고 다음해에는 동북면에서 약탈을 이어가다가 이성계에 의해 격퇴되기도 했습니다.

Q. 홍건적의 침입 이후 평화가 돌아왔나요?

A. 아닙니다. 북쪽 홍건적의 침입에 이어 남쪽에서 왜구의 침입이 계속됐습니다. 왜구의 침입은 충정왕, 공민왕 시기를 거쳐 우왕의 즉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우왕 시기 14년 동안 총 378번, 한 달에 평균 두 차례 침입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횡수뿐만 아니라 침입의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20여 척의 선단이었으나 나중에는 500여 척의 큰 규모도 등장했고 그 인원이 수천 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해적 수준을 넘어 고려의 군대와 전투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왜구의 피해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를 비롯해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등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왜구가 해안뿐만 아니라 내륙 깊숙이 들어와 활동하기도 했고 개경과 가까운 강화도, 예성강 하구까지 나타나면서 수도 개경에 경계령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내륙 지방인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주장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피란과 이주 등으로 해안 지역은 ‘쓸쓸하게 텅 비어 버렸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였고, 농토가 황폐해졌습니다. 많은 지역에 행정 공백을 초래해 세금조차 잘 걷히지 않아 국가 재정에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Q. 고려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나요?

A. 계속되는 홍건적,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는 짧은 시간에 많은 군대를 준비합니다. 동시에 읍성을 수축 또는 중축하며 방어시설을 갖추고 군사 조직을 정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무력적인 토벌을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우왕 때 최영은 충남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했고, 최무선은 충남 서천(진포)에서 화약을 사용해 500여 척의 왜선을 불태웠습니다. 특히 이성계는 내륙까지 침입한 왜구를 전라도 지리산 일대 황산에서 크게 격파했습니다. 당시 강물이 왜구의 피로 6~7일 동안 붉은색을 보여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었다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당시 왜구로부터 노획한 말이 1600여 필이나 났습니다. 1388년(창왕 1년) 박위는 병선 100여 척을 거느리고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해 왜구의 배 300여 척과 가옥을 불태우는 성과를 냈습니다.

계속되는 외적과의 전쟁 속에 고려의 군대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군대의 사령관(신흥 무인) 권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신흥 무인은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을 통해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이성계는 그 군사력을 토대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했던 것입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홍건적

공민왕 때 북쪽에서 침입해 개경을 함락했던 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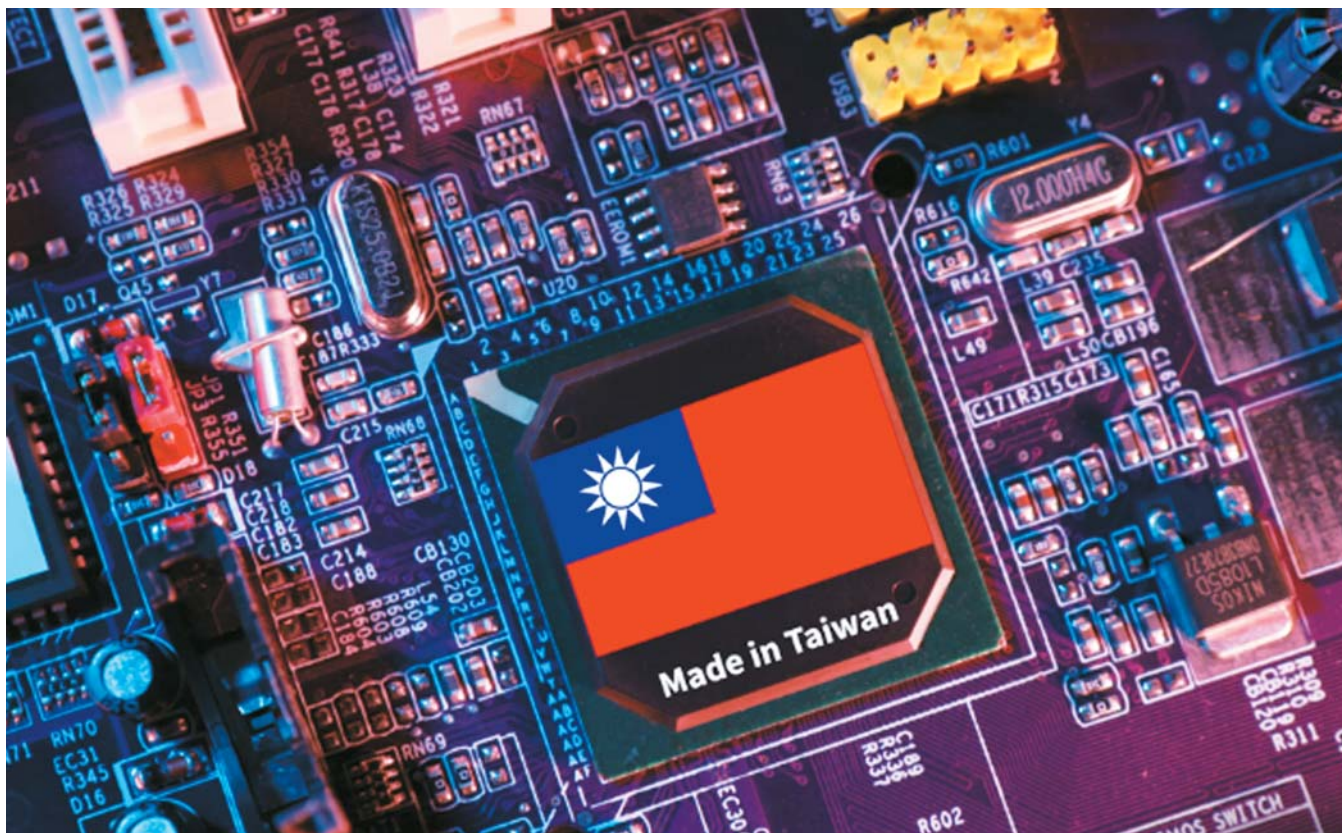
황산대첩

이성계가 전라도 지리산에서 왜구를 크게 격파한 전투

화약

최무선이 진포 전투에서 새롭게 사용한 무기

대만이 가진 특별한 힘, 반도체



대만의 TSMC는 최첨단 소형 반도체 생산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김창현 선생님의
국제관계 토크아보기

지난 시간에는 20세기 중국 본토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두 세력이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에서 패한 국민당이 대만으로 정부를 이전하면서 중화민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1971년 본토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대만의 지위를 대체하면서 대만은 국제 무대에서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지금은 공식 수교국이 12개뿐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의 국제적 영향력은 단순히 수교국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만에는 ‘실리콘 방패’가 있거든요.

잠시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영화 ‘어벤져스’는 지구를 지키는 힘 있는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벤져스의 리더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아이언맨은 미사일도 레이저도 쓸 수 있고, 토르는 망치를 휘두르며 날아다닐 수 있는데, 캡틴 아메리카는 근력이 좀 뛰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강력한 무기 ‘비브라늄 방패’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소재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서 파괴되지 않는 방패죠.

대만의 ‘실리콘 방패’는 대만 반도체의 별명입니다. 반도체의 소재가 실리콘이라서 붙은 이름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여러분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컴퓨터,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미사일이나 전투기 같은 무기, 뇌에 문제 있을 때 영상으로 찍어볼 수 있는 CT 등 의료기기,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등,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기계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반도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잘 만드는 국가가 대만입니다.

반도체 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로 크게 나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기억’이라는 영어 표현처럼 데

이터를 기억(저장)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정보를 처리 또는 계산합니다.

시스템반도체는 핵심적인 기계의 두뇌라고 할 수 있어요. 대만에는 이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TSMC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위탁생산한다는 말은 반도체를 설계하지 않고 설계도대로 만들어주지만 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 모양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건축설계사라고 하죠. 설계사가 설계도를 그리고 나면 직접 현장에 가서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고, 레미콘으로 시멘트를 부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실제로 건물을 짓는 작업은 시공사가 하겠죠.

과거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설계도 하고 실제로 반도체를 만드는 일까지 담당했어요. 그런데 대만의 TSMC는 이런 발상을 바꾸어서 설계도만 주면 설계도대로 잘 만들어주는 ‘생산’을 담당하겠다고 나섰어요. 이렇게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TSMC의 파운드리 전략은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의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와 격차는 무려 59%에 달해서 TSMC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만을 위협하는 세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것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이 불안정해진다는 뜻이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TSMC의 주 고객은 미국 기업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플’이 최대 고객이죠. 그래서 대만 섬의 안정은 미국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고 있고,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여 대만과 정식 국교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핵심 이익으로 대만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가진 ‘실리콘 방패’, 역시 만만치 않은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과천외고 영어교사



반도체 종류

메모리반도체는 데이터 기억
시스템반도체는 연산 담당

파운드리

설계도를 받아 생산해주는
반도체 산업 형태

실리콘 방패

압도적 파운드리 생산능력
덕분에 대만이 갖는 보호막

주식투자 우등생 ‘외국인’ 따라해볼까



허서윤 기자의
재테크 첫걸음



게티이미지뱅크

증지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조건에서 주식을 사고팝니다. 이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개개인의 자격으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매 주체를 크게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로 구분하고, 매일매일 투자자 그룹별 자금 흐름을 발표합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다 보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증시 대세를 좌우하는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에는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 헤지펀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 계좌를 통해 나오는 매도·매수 주문을 통해서 이들의 투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주 숫자는 전체의 0.5%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40%에 육박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규모로 볼 때 사실상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대형 투자은행에서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중동 등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 결정에 있어서 환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에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면 반대로 원화 강세 추세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증시 ‘믿을 맨’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개인이나 법인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합니다. 증권사(금융투자), 자산운용사(투신),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이 기관투자자에 속합니다. 평소에 펀드에 가입하려고 증권사에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펀드를 운용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는 은행과 같이 펀드를 판매하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펀드를 운용

하는 곳은 ‘자산운용사’입니다. 기관투자자 매매동향 지표를 보면 ‘투신’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가 매매한 주식 거래액을 나타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도 영향력이 있는 주요 기관투자자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 자산이 1000조원을 넘기면서 일본의 공적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이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 증시가 대내외 충격으로 급락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증시 버팀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과거에 비해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상황을 살필 때 외국인 투자자와 더불어 기관들의 동향 역시 잘 살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똑똑해졌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증지에서 거래하는 투자자의 99%가 개인투자자입니다. 거래하는 사람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지만 1인당 투자금 규모가 크지 않고 제각각 움직이기 때문에 일명 ‘개미투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간혹 ‘압구정동 미꾸라지’ ‘여수 고래패밀리’ ‘주식농부’ 등으로 알려진 슈퍼개미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 비하면 투자 실탄이 적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장기·분산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또 주식 투자 기법이나 실력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매매 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증시가 출렁이는 기간에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TNETF로 승부하라〉 저자



시사용어 CHECK

동학개미운동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에 들어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내놓은 주식 물량을 받아내며 주가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를 ‘동학개미운동’이라 불러요.

짜증나고 초조하고 ... 나도 우울증인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수정이는 아침마다 “오늘 학교 안 가겠다”며 부모님과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어울리던 친구들과 지난해 살짝 다툰 뒤로, 줄곧 혼자 지내고 있어 등교가 가혹하게만 느껴지는데요. 친구들이 자주 따돌리고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아 학교에 있는 시간이 힘들기만 합니다. 이런 애길 해도 부모님은 “반도 바뀌었는데 새 친구를 사귀면 되는 거 아니냐”며 다그치기만 합니다. 요즘엔 즐겨 듣던 노래를 들어도 기분이 답답하고,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을 봐도 웃기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실의 공기가 낯설고 차갑기만 해서, 등굣길이 영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자주 기분이 축 처지고 매사에 의욕이 없다면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울증’은 청소년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병이기에, 부끄럽게 여길 필요 없이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우울증 증상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하다’는 기분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짜증, 초조함, 집중력 저하, 불면증 등도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우울증이 우울한 기분보다 예민하고, 화가 많아지고, 사소한 일에 자주 짜증이 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거나 모든 일이 재미없고, 피곤해서 잠만 자고 싶은 것 또한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울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모든 사람은 일이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을 때 우울해지죠. 만약 그 일이 해결된 뒤에 기분도 나아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일이 끝나도 우울하면 우울증이라 봅니다. 병원에선 우울한 기분이 2주 이상 계속되고 경고 증상 중 4가지 이상을 가졌다면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아래 증상 중 혹시 4개 이상 해당하진 않는지 확인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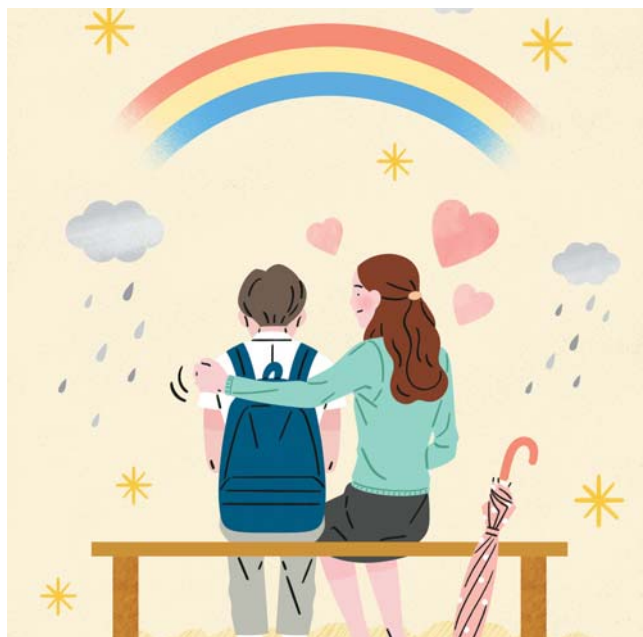
〈우울증 경고 증상〉

1. 슬프고 화나는 기분이 대부분의 날 동안 지속
2. 예전에 즐거웠던 일에 덜 흥미를 느끼고 즐겁지 않을 때
3. 학업 등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
4. 수면 패턴의 변화
5.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6. 평소보다 피로를 더 많이 느낄 때
7. 평소와 다르게 남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을 때
8. 자존감이 낮아질 때
9. 두통이나 복통 같은 통증이 잦아질 때
10. 죽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자해, 자살에 대해 생각할 때

(출처=서울대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MAY 클리닉)

SNS 사용 등으로 청소년 우울증 증가

청소년기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 몸과 마음이 활발하게 변하기 때문이죠. 정신적으로



게티이미지뱅크

도 불안정해서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도 큼니다.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을 앓는 소아청소년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7~18세) 중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수는 5만3070명으로, 2018년(3만190명) 대비 75.8%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청소년기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을 경험했다면 우울증을 겪기 쉽고요. 과도한 학업, 친구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는 경우에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우울증 사례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주 SNS 속 타인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습관은 우울증을 부르는 것이죠.

우울하다면 바로 도움 요청하세요

우울증인 것 같다면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우울, 슬픔, 짜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어른들의 기대에 맞춰 억누르고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울증을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큼니다.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재현 교수는 “우울증을 경험한 아이들은 성인이 돼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위험도가 2.78배 크고,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위험도 높다”며 “우울증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주변에 말하기 어렵다면 다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에 전화하면 24시간 중 언제든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다들어줄게’도 상담을 제공합니다. 다들어줄게 앱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혹은 문자(1661-5004)로 고민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유 교수는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아이라면,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기회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기를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매경헬스 기자



김보람 기자의
보람찬 건강이야기

짜증·불면·두통 등
다양한 신호 보내

청소년 우울증 겪기 쉬워
학업·친구·SNS가 원인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도움받아야
국가 상담센터 이용도

중학교부터 챙긴 내신, 대입까지 족

각 시도 교육청은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3월 말에 발표했습니다. 과학고, 외고,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 등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목표로 하는 고교에서 평가하는 일부 과목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학생이 궁극적으로 진학하고 싶어 하는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 내신 반영에 있어 고입과 차이가 있습니다. 대입에서 교과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고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중학생이 전략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고입은 특정 교과 위주, 대입은 전 과목 위주 평가

고입에서 평가에 활용되는 과목은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전형 매뉴얼'에 따라 정해져 있어 고교 유형별로 한정적입니다. 외고는 영어, 과학고는 수학, 과학,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는 국, 수, 영, 사, 과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목표하는 고교에서 요구하는 교과 위주 또는 주요 교과 중심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고교 유형별 내신 반영 과목 예시

구분	반영 과목
과학고	과학, 수학
외국어고, 국제고	영어
전국단위 자사고	국영수사과 기본 (민사고 등 일부 고교는 기타 과목 추가)

대입에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2026학년도 기준으로 약 70%를 차지하는데 많은 학생이 진학하고 싶어 하는 최상위권 대학은 전 과목을 반영하고, 그 외 상위권 대학은 주요 과목 위주로 반영합니다. 종합 전형의 경우는 내신에 비교과까지 포함된 학생부 전반을 평가하기 때문에 전 과목 내신이 평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 자신이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에 관련된 과목의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것과 함께 그 외의 과목의 기본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고가 목표라면 영어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대입까지 바라본다면 그 외의 과목까지도 기본 개념을 다져놓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서울대 학생부종합 전형 교과 성적 평가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역량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2026학년도 주요 14개 대학 교과 전형 내신 반영 교과목

반영 교과	해당 대학	비고
전 교과	고려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성균관대 정량평가 시, 진로선택 미반영
국수영사과+한국사	건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건국대 진로선택 정성평가 시 반영 경희대 진로선택은 상위 3과목
국수영사과	중앙대	-
(국수영사/국수영과)+한국사	동국대	상위 10과목 반영
국수영사+한국사/국수영과	홍익대	-

대입에서도 내신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미리 포기하는 일 없어야

내신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 중 일부는 중학교 때부터 내신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고등학교 입학 후 내신이 낮아도 수능 성적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행 대입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신을 포기했을 때는 대입에서 선택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상위권 대학의 수능 전형에서도 내신 반영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대입을 위한 기본 습관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내신 공부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평소 실천하지 않았던 습관을 형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5학년도 경희대 학생부종합 전형

학업 성취도 평가 항목 예시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목(예 :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의 교과성적은 적절한가?
- 그 외 교과목(예 : 예술·체육,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 교양 등)의 교과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 학기별/학년별 성적의 추이는 어떠한가?

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자신이 생각한 만큼 내신성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신을 포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 성적 추이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아이스하키 선수, 대학 때 가장 빛나죠

고려대 문진혁 코치



혹시 ‘아이스하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빠른 스피드와 격렬한 몸싸움, 그리고 시원한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이 먼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청소년 중에는 운동을 통해 대학 진학과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늘은 선수에서 지도자로, 링크 위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문진혁 코치(26)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이스하키부 사진.

Q1. 아이스하키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나요?

어릴 적 저는 소심한 성격이었고, 다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좀 더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활동을 해보라’고 권유하셨고, 마침 초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2. 학창시절(중·고등) 선수로서의 하루 일과는 어땠나요?

아침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아이스링크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학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은 보통 11시부터 16시까지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력 훈련을 포함한 지상훈련이 있었고, 저녁 식사 후인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다시 아이스링크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침부터 밤까지 훈련과 수업이 짝 찬 하루였죠.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Q3. 체육특기로 학창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나 고민은 없었나요?

고입이든 대입이든 항상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하루라도 훈련을 거르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늘 있었죠. 그래서 큰 부상이 아니면 웬만한 통증이나 피로는 참고 훈련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입 과정에서는 ‘고려대 특기자 전형’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매 경기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면서 임했습니다.

Q4. 여러 대학 중 고려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고려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스하키 선수로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대학과 비교했을 때 고려대는 학교 내에 자체 아이스링크장을 보유하고 있어 이동이나 사용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훈련이 가능했고, 생활적인 지원도 잘 마련돼 있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라 판단했습니다.

Q5.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부상’이었습니다. 흔히 ‘부상이 선수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선수의 커리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부상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방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어떤 자세로 회복을 대하느냐가 향후 커리어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Q6. 국내 아이스하키의 현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현재 국내에는 중학교 팀이 약 5개, 고등학교는 4개, 대학교 역시 4개 팀만이 존재하고 있으며, 프로팀은 단 1개(HL 안양)에 불과합니다. 선수 수를 기준으로 봐도 유소년 선수는 3000명에 달하지만, 중학생은 100명, 고등학생은 80명, 대학생은 60명, 프로선수는 불과 20명 남짓으로 극단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아이스하키가 아직은 ‘스포츠 산업’이라기보다는 ‘학원 스포츠’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소년 팀과 동호회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자생적인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선수층 확대와 경기수 증가, 그리고 팬덤과 스폰서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내야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7. 대학 진학을 목표로 아이스하키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 드렸던 배경 속에서 많은 아이스하키 선수가 현실적인 선택으로 ‘대학 진학’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경향이 강합니다. 프로팀이 극히 제한적이고, 실업팀의 연봉 역시 다른 종목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더군다나 현재는 상무팀(군 복무 대체팀)도 없어 병역 문제로 인해 프로 선수의 커리어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면 대학 무대가 선수들에게 가장 빛날 수 있는 시기이자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때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 무대에서 제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Q8. 선수 시절과 비교해 코치 생활은 많이 다른가요?

선수 시절과 코치 생활은 생각보다 매우 다릅니다. 선수일 때는 주어진 훈련을 열심히 소화하고, 경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에 집중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코치가 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고민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어떤 훈련 방식을 적용할지, 각자의 특성과 기량을 어떻게 끌어올릴지를 매일 고민합니다.

또한, 선수들의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살펴야 하기에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환경 전체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Q9. 아이스하키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언제나 환경이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즐기면서 끝까지 부지런히,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해보세요. 그렇게 쌓인 시간들은 결국 여러분에게 값진 경험과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힘든 일이 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성과가 올 겁니다. 처음 아이스하키(운동)를 좋아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고, 항상 재밌게, 죽어라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구 인턴기자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 2024-254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
50회

틴매일경제 FEST

시험일
2025.05.24(토)

접수기간
2025.04.07(월)
~ 05.12(월)



매일경제 아카데미
*공식 인스타그램
@mknews_lab



*공식 유튜브
매테나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틴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장승준, 손현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